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말씀 : 누가복음 11장 37~54 절

요절 :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우리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른 생각하면 2 천 년 전의 사람들인 유대 종교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깨닫고 영접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37,3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37,38)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같이 하자고 초대했는데,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무더운 중동지역 날씨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식사하기 전에 손 좀 안 씻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서 손 씻는 일이란 그냥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규칙이 있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Karaite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랍비로 활동 중인 Nehemiah Gordon은 손 씻는 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손 씻는 용으로 정해진 주전자를 오른 손에 들고 왼 손에 물을 붓은 다음 손을 바꿔 오른 손에 물을 붓고, 다시 왼 손, 오른 손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

주의 왕이시여! 손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매 식사 때 마다 손을 씻습니다. 바리새인의 유래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토라(모세율법)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70 년 만인 BC 516년에 포로생활에서 돌아 온 후, BC 2 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유대나라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였고, 율법중심의 신앙회복과 경건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바리새’라는 어원도 세속과 비 율법,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옛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를 이루면서 바리새주의(Pharisaism)라는 고유한 종교적 전통과 교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 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귀에 거슬렸습니 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 일행을 감시하며 송사거리를 찾으려 혈안이 되 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전해 온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습니 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유대인들 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랜 신앙적 전통과 교리, 율법을 무시하고 허물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전해 준 토라(율법)를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야 일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손 씻는 법은 랍비 제정법이라고 해서 랍비들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만든 법입니다. 바리새주 의에서 랍비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에게는 법을 제정하며 성경을 해석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전적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랍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랍비들이 제정한 법률을 히 브리어로 ‘타카노트(Takkanot)’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모세오경을 정 경으로 삼고 있었지만, 모세율법(토라) 613 개 항의 기본 율법을 바탕으로 랍비들이 세부항목의 ‘타카노트(Takkanot)’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세율법인 토라(Written Torah)와 함께 랍비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Torah)으로 인정 할 뿐 아니라 모세율법(Written Torah)보다 랍비율법을 더 높은 지위에 두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주의에서는 랍비들의 교훈과 전통이 모세오경(Written Torah) 이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서 랍비율법과 모세오경(Written Torah)를 통틀어 할라카(Halachah, 계명, 율법)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9~41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39~41)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39a)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에 의해 제정된 ‘타카노트(Takkanot)’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이 만든 법에 따라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율법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분으로 손을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손을 열심히 씻고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좀 귀찮기는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어리석다”고 크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의 명령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는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다 랍비율법을 더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고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랍비율법을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계명**”(the commandments of men)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영적무지와 흑암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29:1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느냐는 참으로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며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며, 영적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순종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영적 타락을 가져 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람의 계명이 설교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쇠락하였습니다. 내적치유, 상담신학과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영성운동이나 WCC와 같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연합운동 역시 사람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이 어두워지고 피곤하며 마음이 낙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을 떠도 감아도 사람의 계명과 죄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인 랍비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7:5~9)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역시 손 씻는 법과 잔을 깨끗이 하는 랍비율법은 지키면서 구제,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깨닫는 것이 둔해지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 집니다. 사람의 계명을 듣고 배우다 보면 내면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놓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41,4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41,42)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7~11절, 에스더 9장 22절, 잠언 11장 24,25절, 28장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42)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7~19)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의 행위로 살라는 것이나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순종함으로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4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문안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43a)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화를 선포하시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란 서기관으로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라고 하시며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1,14)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무겁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도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이 지기 어려운 랍비율법의 짐을 만들어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습니다. 46 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46)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39 가지의 안식일 법을 만들어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에 무화가 열매 두 개의 무게이상은 들 수 없다 라든가, 두 글자이상의 글씨를 써서는 안 된다 라든가 한 모금의 우유 이상의 분량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안식일 법을 어기는 자를 발견하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드는 행위라든가 허리를 90° 이상 굽히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 살인 역시 안식일 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또 죽여야 할 죄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지운 것입니다. 키파를 쓰지 않고 맨 머리로 4 큐빗 이상을 걸어 서는 안 됩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아침찬양시간, 옷을 세탁하는 요일, 마늘을 먹는 요일 등 음식, 건강, 이웃과의 관계, 신발 신는 순서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0 여 가지의 랍비율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랍비 제정법인 ‘타카노트(Takka- not)’는 구전으로만 전승되어 오다가 AD 200년에 미쉬나(Mishnah)로 편찬하였고, AD 400~500년경에 탈무드(Talmud), AD 1180년에 마이모니디스(Maimonides)가 편찬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와 미쉬나, 탈무드를 매일 일정 분량 읽

고, 공부하며, 토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인데, 탈무드는 백과사전 크기로 63권의 분량입니다. 랍비들이 제정한 랍비율법은 사람이 지기 어려운 짐입니다. 이를 다 지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둘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도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47,48)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동일한 내용을 사도 행전 7 장에서 스테반은 순교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목이 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행 7: 51~53)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정곡을 찌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야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근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 교사 너희 역시 너희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야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 이스라엘이 성경이 약속하고 기록한 그 메시야를 배척하고 죽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해야 합니다. 다같이 49~

5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49~5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사도를 흠모하다 못해 자칭 선지자와 사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들이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임당하며, 또 박해를 받을 자들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죽임당하고 박해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는 곳에는 그들이 당할 고난과 죽음도 함께 예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사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흘린 피와 고난에 반드시 댓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보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그 세대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50)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흘린 피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릅니다. 창세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 시대와 오는 세대를 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다 간 순교자들의 피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댓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멸망하고 유대 민족은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그 시대와 장차 오는 시대를 심판하는 증거의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역사를 위해 사명인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 환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실 때 박해와 죽음을 함께 예비하셨고 그것은 또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넷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52) 마태복음의 같은 부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 율법 교사들은 율법지식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침으로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를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을 먹이도록 함이었습니니다.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 삼으신 것은 세상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악하여지고 목자는 양 무리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과 백성의 목자들을 완악한 가운데 두셨습니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파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열쇠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율법 교사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을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읽고, 연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율법과 랍비율법,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제정한 랍비율법, 즉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혼탁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도록 하는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선지자와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